

市政質問 答辯書

질문의원	김 병 옥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도시디자인과
제 목	교도소 유치에 대하여	답 변 자	시 장

[질문요지]

- 속초시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향후 개발 가능한 권역별 면적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장·단기적으로 답변
- 현재까지 교도소 유치과정과 전반적인(주민의견, 합리성,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결과

[질문요지]

- 평소 주민들의 민의를 바르게 전달하여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김병옥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1. 속초시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향후 개발 가능한 권역별 면적과 발전방향에 대한 장·단기적 계획과
2. 현재까지 교도소 유치과정과 전반적인(주민의견, 합리성,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결과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속초시의 행정구역 면적은 총 105.6km²로 이중 도시지역이 37.2km²로 전체의 35.2%, 비도시지역이 68.4km²로 6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이 7.6km², 녹지지역이 23.9km², 미지정 지역이 5.7km²입니다.

따라서, 실제 시설도입을 위한 개발가능지는 도시관리계획상 녹지
지역중 생산·자연녹지지역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속초시
녹지지역 23.9km²중 보전녹지 0.2km²를 제외한 23.7km²가 개발가능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가능지 23.7km²중 순수개발 가능지는 경관지구, 녹지·공원
·도로·유원지 등 개발억제 및 개발 불가능지역 8km²와 자연 및
인문·환경상 개발 불가능지역 11.4km²를 제외한 4.3km²로 속초시 도시
지역 면적의 11.65%, 전체면적의 4.1%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개발가능지는 표고 100m이하, 경사도 30도 미만 또는 경사도
20도 미만지역중 기 개발지, 개발 억제지 및 개발 불가능지를 제외한
지역과 시가화구역內 미개발 공지 등이며

개발 불가능지는 환경평가 1·2등급지, 경사도 30도 이상지역, 도시
생태계 보전가치 I·II등급지, 임목본수도 50% 이상인 지역으로
속초시 도시관리계획 총 면적 110.9km²중 83.4km²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정시설 예정부지는 2006년부터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생태
자연도 1등급"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가기관 등 공공청사의 유치 이외에는
관광지 개발 등 다른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어서 주요대단위 사업을 위한 권역별 개발 가능지와 장·단기적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개발 가능지는 총 5개지구 2.47km²로

도문지구 0.25km², 대포지구 0.57km², 소야지구 0.95km², 자활촌지구
0.36km², 장천지구 0.34km²입니다.

현재, 속초시는 단기적으로 대포항매립지 관광레저시설 조성, 척산 휴양촌 온천리조트 개발, 속초해수욕장 4계절 체험 관광지조성, 영랑호 주변 관광지개발, 청초호유원지개발 등을 거점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 대포 만주벌 지역 개발, 조양동 구 정수장 부지와 청대산 인근지역 개발, 자활촌지역과 소야 지구도시개발, 영랑동·청호동 해안변 개발을 추진하는 등 대규모 민자·외자 유치사업을 통한 관광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장천지역에 교정시설 유치와 함께 지원·지청이 입주할 수 있는 법조타운으로 개발해 나감은 물론

여타 개발 가능지에 대한 장기발전방향은 속초시 미래발전과 시 전역이 균형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정시설(교도소)를 유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속초시는 양대 성장동력산업인 관광과 어업기반의 붕괴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자본에 의한 관광레저 사업 유치, 농공단지 등을 조성하여 제조산업을 유치코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체면적의 64%에 달하는 과다한 국립공원구역 편입과 협소한 도시면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 등 공공기관 유치는 여러개의 중소기업체를 유치하는 것과 같은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난해 5. 3 속초상공회의소, 속초시번영회, 속초 소기업
소상공인협회 등 속초지역 경제 3단체장이 연명으로 자구책 차원의 「교도소
및 교정관련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법무부와 속초시에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역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고, 속초시도 제반
여건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에서 신중하고 긍정적인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검토
하게 되었습니다.

시의 정책입안은 지협적 측면을 떠나 속초전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전제
하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화 가능성, 각종 규제에 의한 개발 제한 등
지리적 여건은 물론, 개발대상지의 발전 기대치와 지역주민의 수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한계상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제한
되고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지역이 발생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영랑동 아산장례식장 뒷편에 교정관련 시설을 유치코자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 지역을 속초시가 주도적으로 조속한 개발대책의
수립을 통해 도심권과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심끝에 결정
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교정시설의 필요성과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무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속초교도소는 500명 수용규모로 경비교도대를
포함해서 약 250~300여명의 정도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시설규모는 130,578㎡(약 39,500여평)의 부지에 3층으로 지어질 건물 연면적 20,000㎡(약 6,000여평), 총사업비 450~50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단일 국가기관으로는 최대규모의 시설이 될 전망됩니다.

연간 예산은 직원인건비, 식자재 구입비, 시설보수비 등 약 200여억원으로 지역내 금융권에서 순환되며, 식자재 및 각종 소모품 또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소기업 소상공인 제품들이 전량 사용되게 됩니다.

또한, 면회객들로 인해 음식과 숙박업소, 택시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려하시는 인구문제는 인근의 강릉교도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교도소에는 181명의 직원과 경비교도대 43명 등 총 2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176명이 강릉에 주소를, 48명이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고 관외에 주소를 둔 직원은 출퇴근 가능지역에 살고 있는 직원과 인사이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과장급 이상의 경우입니다.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과장급이상은 1년6개월정도, 계장급은 3년정도,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급이하 직원들의 인사이동은 타지역 전출 없이 거의 所內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법무부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가족은 총 679명으로 499명이 강릉에, 180명이 학업 등으로 인해 강릉외 지역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듯 330명을 수용하고 있는 강릉교도소로 인해 강릉시는 총 632명의 실질적 인구증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1년 운영예산 120~140여억원과는 별도로 수용자들을 위한 면회객들의 영치금도 연간 10여억원 정도로 전액 지역내에서 간식과 반찬류, 약품, 도서 및 신문구매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병욱의원님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

교도소는 더이상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이제 교도소는 시대변화에 걸맞게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최근에 신축하는 교정시설은 친환경적이고 도시미관을 고려한 건물 시스템과 철저한 면회객관리 등으로 일부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원천적으로 불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교정시설이 지역발전과 경제회생의 촉매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교도소만의 유치가 아닌 지청과 지원이 함께하는 법조타운 조성은 물론 출소자 전문직업훈련소 및 갇생 보호공단 지부 등 기타 교정관련시설이 동반 설치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체육시설 또한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경우처럼 所外에 만들어 많은 시민들이 언제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무부로부터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반드시 최대한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장천지역 주민들께서 반대하고 계시지만 속초시 및 장천 주변 지역의 개발과 발전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긴밀한 협조와 대안제시 등을 통해 순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강원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검찰지청이 있는 도시는 춘천·원주·강릉·속초·영월군 등 5개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영월군은 행정과 주민이 유치를 신청하여 영월교도소가 2006년 3월 착공되어 2009년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어 춘천·원주·강릉·영월에 4개소의 교정시설이 이미 설치되었으며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속초시에만 교정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교정시설에 대한 국민 인식도 크게 바뀌어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교정시설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이미 영월군 지역이 유치를 신청하여 교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경북 상주시, 경남 밀양시, 전남 해남군에서도 교정시설 유치를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앞장서서 추진하여 교정시설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속초시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의 양보와 협력, 상생의 시민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김병욱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